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연구로 이상기후 대응

구윤철 부총리, 성장전략 TF회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차 계획
2030년 기후예측모델 개발하고
내년 스마트농업 혁신지구 지정

K-바이오·뷰티, AI기술과 연계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 나서기로

정부가이상기후·기후변화에대응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또 K-바이오 분야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K-뷰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체험·문화·관광·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성장전략TF(전담반)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AI 대전환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15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세종국연구단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성과 창출을 위한 경제부총리-정부출연연구기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와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안건에는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가운데 ‘기후·에너지·미래 대응’과 ‘K-융합’ 분야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우선 기후위기 및 식량안보 대응을 위해 스마트 농수산업과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등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은 향후 기후 예측 등을 위해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간 이전·협력이 어려운 분야다.

정부는 자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10cm급(현재

30cm)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올해 국가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기후예측모델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분야에서는 내년 중 혁신 선도지구 1곳을 지정해 농업 AX(AI 전환) 거점으로 육성하고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K-스마트팜 모델을 확산하고 현재 16%인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 35%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뷰티 산업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바이오 분야는 AI 기술과 연계해 기술 혁신을 도모한다. 신약 개발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제약사, AI 바이오 기업,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실험실을 구축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AI 바이오 컴퓨팅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10~15년) 및 비용(1조~3조 원)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는 전망하고 있다.

K-뷰티와 관련된 ‘글로벌 성지’를 육성한다는 구상도 내놴다. 내년 초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집적지 1곳을 K-뷰티 통합 클러스터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31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기술·제품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피부과학·소재 등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 수출 세계 3위에서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AI 로봇 분야의 경우 올해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를 확대한다. 로봇 분야에는 2조1000억원, AI 분야에는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AI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추진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등 유망 AI기업에 대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KH유산 ‘선한 영향력’ 의료·예술계 재조명

25일故 이건희 선대회장 5주기
‘이건희 컬렉션’ 예술 관심 증폭
소아암·희귀질환 등 의료기부도

오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5주기를 앞두고 고인이 남긴 ‘KH(이건희) 유산’의 가치가 의료계와 예술계 등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은 총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회에 환원됐다. 이는 유족의 결단으로 시작됐으며 ‘KH 유산’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를 기려 지난 2021년 문화예술품 및 의료 기부를 결정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선대회장의 유족들은 2021년 4월 “문화유산 보존은 시대적 의무”라고 강조했던 고인의 뜻을 기려 미술품 2만 3000여점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가기관에 기증했다. 이는 국내 미술사상 최대 규모의 기증으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대전환점’으로 평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1993년 신경영을 선언하는 모습. /삼성전자

특히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문화예술품 기부는 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폭증시켜 한국 미술 시장이 성장하고 한국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촉매로 작용했다.

국내 순회 전시를 통해 350만 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건희 컬렉션’은 올해 11월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박물관을 시작으로 시카고미술관(2025년 3~7월), 영국 대영박물관(2025년 9월~2027년 1월) 등에서 순회전을 연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거장으로 불리지만 해외에 덜 알려진 박수근, 이중섭 등의 작품이 세계 미술계에 소개될 예정이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이건희 컬

렉션은 단순한 기증이 아닌, 한국 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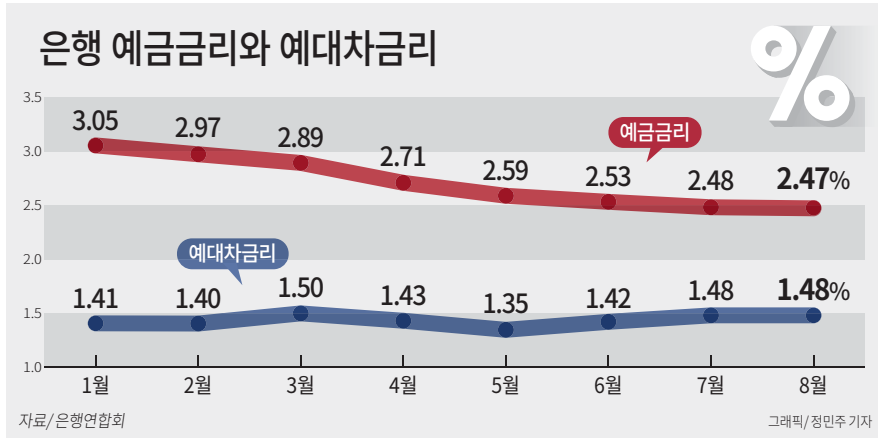
또 이 선대회장이 생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에 노력한 만큼,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3000억원을 기부해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지원사업’을 출범하는 등 의료 기부에도 힘쓰고 있다. 2021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30년까지 10년간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160개 기관,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다. 진단·치료·연구 3개 부문으로 나뉜 사업은 현재까지 2만2000여 명의 환아를 지원했다.

유족은 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대응을 위해 7000억원을 기부했다.

소아암·희귀질환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주희영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유족의 의료기부를 계기로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후원이 더 많이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암·희귀질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및 진단, 치료와 국내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2028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예대차 금리 확대... 은행 또 최대실적 내나

부동산 대책 영향 주담대 금리 올라
변동형 금리 지난 9월과 비슷한 수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금 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예대차 금리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 주담대 금리(변동형)는 이날 기준 연 3.82~5.97%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81~5.9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10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 및 금융 규제 지역 지정을 강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량 감축 등) 대출태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태도 강화는 불가피하게 신용도가 높은 차주 중심의 취급, 대출금리 인상(또는 유지)를 야기하

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의 예금금리는 낮아져 예대차 금리가 커질 수 있다.

예대차 금리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때의 대출금리와 예금을 받을때지급하는 예금금리의 차이로 예대마진으로 불린다. 이 차이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커진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기본금리 연 2.05~2.58%, 최고금리 연 2.55~2.58% 수준이다.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담대 금리가 두배 이상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월 3.05% ▲2월 2.97% ▲3월 2.89% ▲4월 2.70% ▲5월 2.59% ▲6월 2.53% ▲7월 2.48% ▲8월 2.47%로 떨어졌다. 반면 예대금리차는 같은기간 1.41%→1.40%→1.50%→1.43%→1.35%→1.42%→1.48%→1.48%로 벌어졌다. 예대차 금리가 벌어지며 은행의 이자이익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수 상상인증증권 애널리스트는 “수신금리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신금리 하락폭은 제한돼 업종 방어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순마진이익은 약 1bp에 그쳐 실적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JP모건 “코스피 4000 넘어 5000 예상”

》1면 ‘코스피 사상 첫...’서 계속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전망을 기존 3250에서 3800으로 상향하면서 초강세장이 나타나는 경우 4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인공지

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퍼사이클, 전력·설비 인프라 투자 확대, 방산·K컬처 산업 성장세가 지수 상승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JP모건도 향후 코스피가 4000을 넘어 5000까지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에 풀린 돈도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투자자예탁금은 78조3145억원으로 불었다. 전례 없는 강세장에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도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7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23조8800억원에 달한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8년 7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